개혁하여 위망한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위망하게 되었다

제가 듣기로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태를 환히 알아서 난리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바로잡아 다스리고, 위태롭기 전에 나라를 미리 잘 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사람은 일이 일어난 뒤에 깨달아 난리인 줄 알고 다스릴 것을 도모하고, 위태로움을 알고 안정시킬 것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보았는데도 다스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태로움을 보고서도 안정시킬 방도를 찾지 않는 경우라면, 그 지혜라는 것은 이에 형편없는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보통사람보다 뛰어난 자질을 지녔는데도 나라가 무너지는 운세를 당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망(危亡)[1] 한 형상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으로 보통사람들도 탄식하며 답답하

---

1 위망(危亡): 위태로워 망하려고 함. 멸망의 위기

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위로는 황천(皇天)[2]과 조종(祖宗)[3]이 맡겨주신 책임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에 보답할 만한 치안(治安)[4]의 방책을 끝내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다. 전하께서 위망의 상태를 모르고 계신다고 말한다면, 지금 국세가 위태로운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어찌 전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해설

이 상소는 1582년(선조 15) 선생 나이 47세 때 9월 13일 서울에서 올린 글이다. 『율곡전서 』 제7권에 실려 있다. 선생이 이로부터 2년 뒤 49세 때 돌아갔으므로 거의 만년에 쓴 상소라고 보면 되겠다.

상소의 원 제목은 「진시폐소(陳時弊疏)」로서 시대의 폐단을 올린 상소로서 풍전등화와 같은 당시의 절박한 선생의 시국인식이 들어있다. 전체 상소문이 다소 길기 때문에 중간 중간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싣고 소제목과 해설을 덧붙였다.

---

2 황천(皇天): 크고 넓은 하늘. 하늘의 높임말
3 조종(祖宗): 임금의 조상
4 치안(治安):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림

먼저 서두에 해당하는 이 글의 뉘앙스와 논리를 행간에서 따져보면 선조에게 '당신이야 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임금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알면서도 왕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선생의 속마음이 엿보인다.

여기서 등장시킨 이론이 인간의 인식능력에 대한 공자의 용어인데, 유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그 등급에 따라 『논어』의 원문은 제각기 상지(上知)·중인(中人)·하우(下愚)인데, 선생은 상지(上智)·중지(中智)·하지(下智)로 조금 바꾸었는데, 필자가 알기 쉽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과 보통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그것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선생은 선조를 날 때부터 탁월한 인식능력을 지닌 상지(上知)라고 보면서도 실제로 그의 인식 능력이 중인(中人)보다 못하다고 여겼다는 점이다. 이것은 왕의 탁월한 인식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캐보자는 생각과 통한다.

이하의 글은 모두 그것과 관계가 된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上智明於未然, 制治于未亂, 保邦于未危.
상 지 명 어 미 연 제 치 우 미 란 보 방 우 미 위

中智覺於已然, 知亂而圖治, 識危而圖安.
중 지 각 어 이 연 지 란 이 도 치 식 위 이 도 안

若夫見亂而不思治, 見危而不求安, 則智斯爲下矣.
약 부 견 란 이 불 사 치 견 위 이 불 구 안 즉 지 사 위 하 의

» 어휘 풀이

上智: 인식능력이 탁월한 사람 또는 그런 자질/明: 밝다, 밝게 알다/於: ~에, ~에서/未然: 미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制: 마르다, 바로잡다/治: 다스리다/于: ~에서, ~에게/未: 아직 ~아니다/亂: 어지럽다, 난리/保邦: 나라를 지키다, 나라를 보전하다/危: 위태하다/中智: 보통사람의 인식능력 또는 그런 자질/覺: 깨닫다/於: ~에, ~에서/已然: 일이 이미 일어난 때/知: 알다/而: 문장을 잇는 접속사/圖: 도모하다/安: 편안하다. 안녕/若夫: ~에 대해서는, ~와 같은 것은/見: 보다/不: ~아니하다/思: 생각하다/求: 찾다, 구하다/則: 곧/智: 지혜/斯: 이, 모두/爲: 되다/下: 아래, 밑/矣: 문장 뒤에 붙는 어조사

» 문장 구조

1. 나라의 사태에 대한 인식능력의 등급에 따라 크게 세 문장으로 설명하였다.
2. '上智明於未然, 制治于未亂, 保邦于未危'은 上智라는 공통의 주어로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세 개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러니까 '上智明於未然, 上智制治于未亂, 上智保邦于未危'인데 반복된 뒤의 두 주어가 생략된 형태이다. 뒤의 문장도 그런 경우이다.
3. '上智明於未然'에서 明은 술어로서 형용사이고, 於未然은 明을 꾸며주는 부사구이다. 또 '制治于未亂'은 制治가 복합동사이고 목적어는 생략되었으며

于未亂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이다. 그리고 '保邦于未危'에서 保는 동사, 邦은 목적이며 于未危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이다.

4. '中智覺於已然, 知亂而圖治, 識危而圖安'도 작은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而를 기준으로 앞뒤에 절이 있다. 먼저 '中智覺於已然'에서 覺은 동사이고 於已然은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이다. 그런데 知亂, 圖治, 識危, 圖安은 제각기 타동사+목적어의 형태로 된 영어 3형식과 유사하다. 그런 절을 이어주기 위해 而가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들 절의 공통된 주어도 中智이다.
5. '若夫見亂而不思治, 見危而不求安, 則智斯爲下矣'에는 '~와 같이 한다면 곧 ~하다'라는 '若夫~(者) 則~'의 관용어가 들어 있다. '見亂而不思治, 見危而不求安'는 동일한 구조의 조건절인데, 의미상의 주어는 왕이고 타동사+목적어의 형태를 띠고 而가 두 문장을 이어주고 있다.
6. '智斯爲下矣'는 주어+동사+보어 형식의 문장으로 智가 주어 爲가 동사 下가 보어이다. 斯는 부사이고 矣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 해석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태를 환히 알아서 난리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바로잡아 다스리고, 위태롭기 전에 미리 나라를 잘 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사람은 일이 일어난 뒤에 깨달아 난리인 줄 알고 다스릴 것을 도모하고, 위태로움을 알고 안정시킬 것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보았는데도 다스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태로움을 보고서도 안정시킬 방도를 찾지 않는다면, 그 지혜라는 것은 모두 형편없는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